

책 벌레의 진화

디지털 시대, 자유로운 정보 흐름과 도서관의 의미

시드니 버바

미국 하버드대학 도서관장

도서관은 문명의 기록을 소장한다. 대중의 읽고 쓰는 능력이 커지고 인쇄기술이 빨라지고 종이값이 저렴해지자 책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도서관들은 자료를 모두 수용하기 위해 더 큰 건물을 필요로 했다. 책을 찾기 쉽도록 카드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제 디지털 혁명에 직면하고 있다.

도서관들이 당면한 문제

디지털 정보는 인쇄된 책이나 잡지에 실린 정보와는 다르다. 서가나 어느 특정한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다. 네트워크 속에 있으며,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옮겨간다. 디지털 서류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읽을 수도 있다. 키보드를 몇번만 두드리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복사할 수도 있다. 보관하는 데 작은 공간만을 필요로 한다. 디지털 몽상가들은 구두상자 안에 엄청난 도서를 수집하겠다고 말한다. 가상 도서관은 어느 특정 장소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만 연결돼 있다면 어느 누구, 어떤 곳이라도 존재할 수 있다.

1997년 도서관 세계의 가장 큰 사건은, 세인트 판크라스에 있는 영국 국립도서관 개관과 툴비악에 새로 지은 프랑스의 비브리오테크 내소날레이다. 이런 곳에 구두상자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이처럼 거대한 건물들이 정말로 필요한가? 그렇다. 예를 들면, 위대한 역사적인 소장품들은 디지털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 아주 드물게 예외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도서관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소장하고, 언제나 찾아볼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한다.

출판물 대부분은 부패하기 쉬운 산성 종이를 사용한다. 언젠가는 부서져 먼지가 될 것이다. 자동 온도 습도 조절이 가능한 비싼 도서관이 새로 지어지지 않았다면(런던과 파리의 비용을 합하면 총 미화 17억 달러임), 과거 150년 동안 인쇄된 지적 산물들은 150년 내에 거의 틀림없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만다. 지금부터 제대로 간수해야 19세기에 발간된 책들 중 극히 일부만이 2100년에도 책장을 넘길 수 있는 상태로 남을 수 있다.

출판업자들은 해마다 더 많은 디지털 책과 잡지들을 신중하게 내놓고 있다. 시장과 경제 사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종이는 아직도 선택할 수 있는 매체다. 출판물은 해마다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8년후 인쇄물은 지금의 두배로 늘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도서관은 디지털 시대로 들어가는 한편, 전통적인 고유 업무인 종이 다루는 일도 계속해야 한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

디지털 정보와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은 도서관을 새로운 의욕에 불타게 한다.

우선, 종이출판물을 모두 수용할 만큼 충분한 예산이 없다. 예산 부족을 전자 데이터로 쉽게 해결할 수는 없다. 인터넷에 공짜 정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소중한 전자 정보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비용이 든다. 뿐만 아니라, 가용한 물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또한 올라간다.

둘째, 저작권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디지털 정보는 쉽게 복사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그러나 만약 도서관이 책이나 논문의 디지털 판에 대한 접근권을 도서관 후원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작품에 대한 출판사의 저작권은 도대체 얼마나 남아 있게 되는 것인가? 별로 없다. 이 디지털 번역판은 원본과 하등 다를 바가 없으며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는 책의 수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독자들은 아주 쉽게 다른 곳으로 전송할 수 있다. 만약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사본을 정당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면, 그들의 후원자에게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는가? 저작권법의 근본 취지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대중의 알고자 하는 욕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전자시대에는 이 두가지를 다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출판업자와 대중과의 사이에 새로운 균형이 맺어지는 동안 많은 충돌이 예상된다.

셋째, 기록 보관소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디지털 정보의 가장 위대한 덕목은 스피드와 접근의 용이함이다. 기업체들은 최신 경제 정보를 찾을 것이고, 정력적인 물리학자라면 최근 연구결과를 읽을 것이며, 모든 분야의 학자들이 전세계의 동료들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많은 사용자들에게, 정보의 가치란 일단

1997년 새해 지구촌 기상도를 세계적인 시사해설가들을 통해 들어본 책이다. 이 책에 따르면 97년은 어느 해보다 평화롭고, 높은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 정부의 간섭은 적어지고 개인의 책임이 더욱 명확해진다.

빌 게이츠, 토니 블레어, 크리스 패튼 등 세계의 인사들이 각 분야별로 올해의 전망을 짚어본 글 가운데 시드니 버바 하버드대 도서관장이 쓴 97년의 도서관 세계의 변화는 디지털시대 종이책과 도서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여기에 그 글을 발췌 정리한다.

《더 월드 인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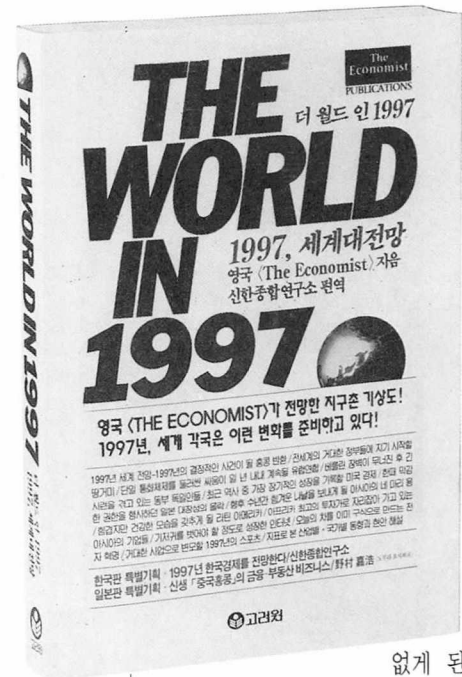
영국 《더 이코노미스트》 지음/
신한종합연구소 편역
고려원/A5신/400면/12,000원

접수되고 흡수되면 그 순간에 사라지고 만다. 도서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의 시사통신도 내일이면 역사적 보관자료에 불과하게 된다. 실형적인 획기적 약진을 알리는 오늘의 인터넷 통신도 앞으로 수십년이 지난 뒤에는 과학 역사학자들에게 하나의 소재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도 시대에 뒤떨어지게 될 것인가

도서관들은 이제 겨우 전자 정보를 채취하고 유지하는 복잡한 과제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부분적으로는 기술적이다. 누구도 전자 매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아마도 양질의 종이보다 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보다 더 복잡한 것은 전자 소재에 접근하는 문제이다. 인쇄된 책은 놀랄 만큼 안정된 형식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읽는 데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디지털 정보는 특정한 하드웨어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을 읽기 위해서는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들 둘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디지털 자료 보관소가 정보를 한 형식에서 다른 형식으로 이동시키려면 구조적인 장치가 있어야만 하는데, 이는 어렵고 아마 틀림없이 비쌀 것이며 이해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만약 디지털 정보가 어디에도 저장할 수



없게 된다면 자료보관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한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자신의 건물 내에 있는 것만큼이나 쉽게 다른 도서관에서 얻을 수 있다면, 그 도서관에서 무엇 때문에 중요한 저장 임무를 맡으려 하겠는가? 협조를 위해 새로운 조직상의 구조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도서관들이 자동화할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도서관을 이용할 것이다. 카드 목록을 디지털화한 모든 도서관들은 종이책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컴퓨터는 훌륭한 사서와 같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사서는 전자세계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 도서관은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자료를 선별하고, 체계화하고 저장한다. 이용자들을 인도하기도 한다. 정보는 앞으로도 끝없이 쏟아져 나온다. 유용한 정보에 비해 쓸모없는 정보의 비율도 매우 높다. 사용자들은 방향을 잡아주는 도움을 필요로 한다. 영국과 파리에서 개관하는 새 도서관들은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던 엄청난 스케일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1997년에 대해 큰소리로 비평을 말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틀렸다. 새로운 도서관을 설립함으로써, 영국과 프랑스는 과거에 대한 열렬한 안내자로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욕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